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독서: 미정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강선우 마르가리따		봉헌금: \$ 141
이번주 미사 해설:		교무금: \$ 435
다음주 미사 해설:		매일미사: \$10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달력판매: \$28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유현영 사도 요한		합계: \$ 614
친교실 정리: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 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추후 공지
예비자 교리	매주 목요일 저녁 8 시, 사제관, 김 아셀라 수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오늘의 묵상>

세례란 씻는 예절입니다. 요한은 실제로 요르단 강에서 온몸을 씻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마에만 물을 붓습니다. 상징적 행위로 남아 있습니다. 세례의 핵심은 죄를 끊고 악습을 씻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자녀로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례성사의 본질은 ‘내적 변화’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밝은 기운이 좀 더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총의 이끄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피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죄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십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사랑’으로 단순화하셨습니다. 그분 가르침에 따르면, 죄는 ‘사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사랑의 생활을 말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성사는 그런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늘의 힘’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탄생입니다. 올해에도 세례 때의 은총을 기억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베푸는 삶’의 실천입니다. 누구라도 베풀면 받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반전’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주님 세례 축일]

2010년 1월 9일

<제1독서> 이사야서 42,1-4,6-7 <여기에 내 마음에 드는 나의 종이 있다.>

<제2독서> 사도행전 10,34-38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회답송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물고,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 루카 3,15-16,21-22

복음

그때에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영성체송]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네.

[오늘의 성가] 입당: 1 봉헌: 216 성체: 163 파견: 449

† <생명의 말씀>

초심, 그리스도를 바라봄, 구원의 문

김선호 루카 신부, 문화복음화원 원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는 갈릴래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갈릴래아는 예수님께서 구원소식을 처음으로 선포한 곳이기도 합니다. 시작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초심’을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곱씹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의 은총을 입은 신자라면 주님께서 명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동양화에서 물고기 세 마리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삼어도(三魚圖) 또는 삼여도(三餘圖)라고 합니다. 주로 공부하는 곳에 이 그림을 두었습니다. 선비에게 공부는 바쁜 일과였고,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잘 때, 눈 올 때, 비 올 때 이렇게 세 번의 여유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바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삼어도에 있는 그림에서가 아닌 예수님에게서 삶의 여유와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무지개가 활같이 휘었다고 해서 Rainbow 라는 이름을 붙였고, 중국에서는 큰 동물(용)의 창자 같다고 해서 채홍(彩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지개를 활도, 벌레도 아닌 “물의 문” 이라는 뜻을 가진 무지개로 이름 지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치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은 마음에서 붙인 듯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문, 오색영롱한 신비로운 문은 자연을 통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나라의 초대장 같은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너희는 여기에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사도 1, 11) 하신 말씀을 새기고, ‘물의 문’ 같은 구원의 문을 열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함께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미사에만 가끔 오는 사람도 있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사람도 있고,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고 따른다면,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진지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 <알려드립니다>

- ❖ 오늘 미사후에 1월 정기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교리>

- ❖ 오늘(1월10일)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의 공생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례주년으로 성탄 시기는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 ‘연중시기’가 시작됩니다.

- ❖ 성당 안에 들어올 때 성수를 찍는 이유

성수(聖水)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물이란 뜻이며, 성스러움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 등을 쫓음으로써 더러운 것을 말끔히 씻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성당에 들어올 때 성수를 손끝에 묻혀 성호를 그음으로써 성당에 들어가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을 통해서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 생각과 원의, 탐욕과 근심, 미움, 분노 등을 모두 씻어낼 것을 다짐하기에 준성사가 됩니다. ‘주님, 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아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듯이, 성수로 성호를 그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왔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마음을 추스리는 것입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탈출 3,6).

동시에 우리가 성수를 찍어서 기도 하거나 성수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물로 받은 세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 마귀를 끊어버리고 마귀의 모든 행실과 모든 허례허식을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서 정말 죄와 악의 유혹을 끊어버리겠다고 성당에 들어설 때마다 이 결심을 새롭게 다짐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요한 3,5).

성당에서 나갈 때는 이미 몸과 마음이 정화되었기에 성수를 찍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도 성수를 준비해 두어 집안에서 필요시에 성수를 뿌리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갔을 경우 사제를 모셔서 축복식을 통해 성수를 뿌리고 혹은 집안에 환자가 생기거나 우환이 들었을 때 악의 세력을 쫓는 뜻으로 성수를 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미신행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